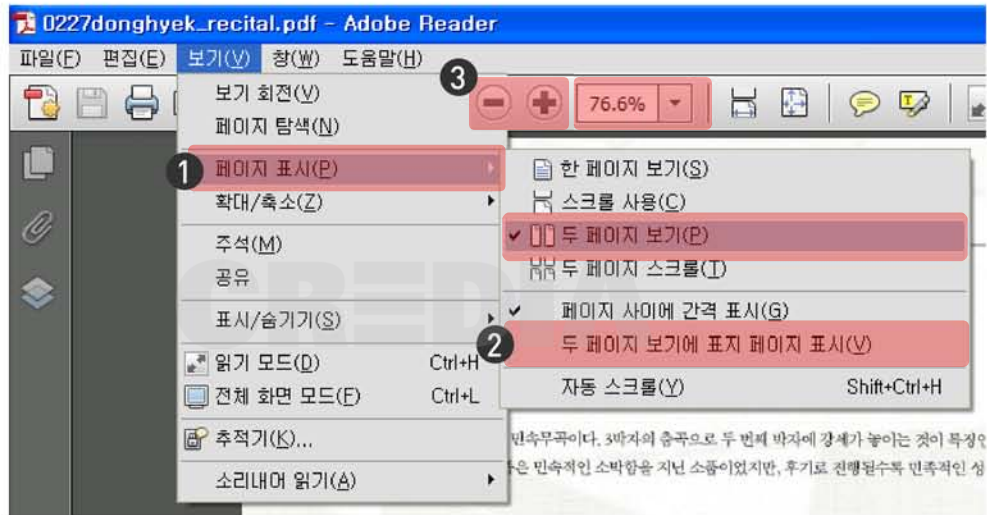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CHRISTMAS
MUSIC FESTIVAL
크리스마스
음악 페스티벌

유쾌한
클래식으로의
초대!

공연
개요

Christmas Gift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

2019년 12월 25일(수) 오후 2시, 6시

롯데콘서트홀

2pm & 6pm Wednesday, Dec 25, 2019

LOTTE CONCERT HALL

지휘 * 금난새

Nanse Gum, Artistic Director & Maestro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바이올린 * 대니 구

Danny Koo, Violin

기타 * 서유덕

Yu Deok Seo, Guitar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LOTTE ENTERTAINMENT**

후원 **KOREAN AIR 50**

프로
그램

조르주 비제 교향곡 다장조, '1, 2악장'

- I. 빠르게 활기차게
- II. 느리게

아스토르 피아솔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봄'

안토니오 비발디 기타 협주곡 라장조, 리움번호 93

루트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번호 67 '운명', '3, 4악장'

- III. 스케르초 : 빠르게
- IV. 빠르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ONLY
클럽발코니 &
씨엘로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동승하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휴식을 함께 하는 꿈 같은 여행.
지상과 선상을 오고 가는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여행 일자 : 2020년 9월 19일(토) ~ 30일(수) (10박 12일)
- 여행지 : 마요르카(스페인) - 나폴리(이탈리아) - 팔레르모 - 발레타(몰타) - 산토리니(그리스) - 아테네 - 헤라클리온(크레타)
- 상품가 : 1,680 만원 (현금가, 발코니캐빈 기준)
인천 - 마요르카 왕복 항공료 별도

PROGRAM

- [공연1]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협연 : 예핌 브론프만)
- [공연2]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아테네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 [공연3] 안드레아스 샤거 & 리디아 바이흐 리사이틀 /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 [공연4]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 [공연5] 베이스-바리톤 어윈 슈르트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6]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7] 빈 필 챔버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하모닉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예정
-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빈 필하모닉과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 카를로 극장과 마시모 극장, 고대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가 전 일정 동행하며 유럽의 음악, 역사, 그리스 신화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문의 1577-5266 010-9799-5266 www.clubbalcony.com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PROGRAM

Georges Bizet Symphony in C Major '1st & 2nd mov.'

I. Allegro vivo

II. Adagio

Àstor Piazzolla 'Winter' & 'Spring' from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Antonio Vivaldi Concerto for Guitar and Strings in D Major, RV93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3rd & 4th mov.'

III. Scherzo : Allegro

IV. Allegro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CLARK

대자연이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 클락을 만나다

대한항공 필리핀 클락 매일 운항
클락의 모든 즐거움, 아침 출발로 여유롭게 누리세요



www.koreanair.com





안녕하세요.

2019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이 꼽혔다고도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작은 희망과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공연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행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연주자들이 이끄는 선율을 느껴보시기를~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 금난새 -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최고의 마에스트로와 멋진 오케스트라 친구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자주 흥얼거렸던 가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금난새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작곡한 ‘그네’였습니다.

금난새 선생님이랑 저의 인연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금난새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외할아버지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을 기다리며 몇 개월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추억을 사랑하는 제게는 오늘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멋진 추억 만들어주셔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대니 구 -





*

조르주 비제 교향곡 다장조, '1, 2악장'

Georges Bizet | Symphony in C Major '1st & 2nd mov.'

19세기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조르주 비제(1838-75). 그는 <카르멘>(1875)으로 프랑스 오페라의 역사에 불멸의 이름이 되었죠. 비제가 오페라 작곡가의 꿈을 꾀던 것은 그의 스승인 오페라 작곡가 샤를 구노(Charles Gounod)와 발레 음악의 거장 프랑탕탈 알레비(Fromental Halévy)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파리 음악원에 재학 중이던 17세에 특이하게도 순수 기악곡인 교향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구노의 영향이었죠. 구노는 베토벤의 교향곡이 파리에 소개되며 관심을 끌던 1855년에 빈 스타일의 교향곡 두 작품을 썼습니다. 이 곡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비제에게 신선한 감흥을 일으켰죠. 비제는 그해 10~11월에 걸쳐 <교향곡 다장조>(1855)를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서랍 속에 넣고 말았죠. 이 악보는 부인인 주느비에브 비제(Geneviève Bizet)가 소장하고 있다. 작곡가 레이날도 안(Reynaldo Hahn)에게 인도되었고, 안이 세상을 떠난 후 1933년에 그의 유품이 음악원에 기증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1935년에 펠릭스 바인가르트너(Felix Weigartner)에 의해 초연된 이후, 관현악단 레퍼토리로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비제의 <교향곡 다장조>는 구노의 작품과 같이 빈 고전의 외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1악장 '빠르게 활기차게'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곡의 시작과 함께 관현악단 전체가 뿜뿜이 상승하는 제1주제를 연주합니다. 제2주제는 오보에에 의해 서정적으로 제시됩니다. 이 두 주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은 어린 비제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잘 보여주죠. 2악장 '느리게'에서는 무희가 홀로 춤을 추는 듯한 오보에의 고독한 독주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어느덧 무대를 채우는 군무로 확대됩니다. 중간 부분은 여러 선율이 뒤엉키는 푸가가 등장하는데, 마치 어떤 대립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3악장은 완벽한 스케르초 형식이구요, 마지막 4악장은 민속무곡 스타일의 주제들이 흥을 돋웁니다. 오늘은 이중 첫 두 악장이 연주됩니다.



*

아스토르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봄'

Astor Piazzolla | 'Winter' & 'Spring' from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20세기 초엽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 악단들이 많이 탄생되었습니다. 반도네온 연주자였던 아스토르 피아졸라(1921-92)도 그 일원으로 일찍이 이름을 알렸죠. 그런데 피아졸라의 탱고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김음과 불협화음, 고전적인 형식 등 어린 시절 뉴욕에서 살면서 심취했던 재즈와 클래식의 영향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의 탱고는 탱고의 혁명으로 받아들여졌고, 춤이 아닌 감상을 위한 탱고로서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피아졸라는 이러한 자신의 탱고를 '누에보 탱고'(새로운 탱고)라고 불렀죠. 오늘날에도 당김음의 연속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리듬과 열정적인 단서를 그린 듯한 멜로디로 세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짙은 애수를 품은 느린 선율 또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는 분명 비발디의 '사계' 다음으로 유명한 '사계'일 것입니다. '여름'이 1965년에 연극 '황금 머리털'을 위한 부수음악으로서 가장 먼저 작곡된 이후, 1969년에 '겨울', 1970년에 '봄'과 '가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겨울과 봄이 연주됩니다. '겨울'은 겨울의 스산한 풍경을 그린 후 눈보라가 치는 듯 격렬해집니다. 이 두 주제가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긴장과 이완이 연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다에서 비발디의 '겨울 협주곡'이 연상되는 고전적인 선율이 잠시 등장하고 마칩니다. '봄'은 세도막 형식입니다. 열정적인 부정 리듬 선율이 제시되고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사그라지면서 종지부를 찍으면, 곧 서정적인 중간 부분이 등장하며 마음속 깊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와 화려하고 강렬하게 마무리하죠.

피아졸라의 곡은 자유로운 편곡과 즉흥연주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에서 관현악 편곡의 새로운 감흥과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토니오 비발디 기타 협주곡 라장조, 리움번호 93

Antonio Vivaldi | Concerto for Guitar and Strings in D Major, RV93

베네치아의 '붉은 머리 사제' 안토니오 비발디는 번개 같은 작곡 속도를 자랑하며 무려 800여 곡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500여 곡이 협주곡으로, 비발디는 자신의 악기인 바이올린을 비롯하여 다양한 악기를 위해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류트가 독주인 곡은 <협주곡 라장조, RV93>과 <협주곡 라단조, RV540> 단 둘 뿐입니다. 독주악기로서 류트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비발디가 이 곡을 작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연주되는 RV93의 경우, 악보에 프라하의 귀족이었던 요한 요제프 브르트비(Johann Joseph Wrtby) 백작에게 헌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브르트비 백작은 열정적인 류트 연주자였죠! 이제 의문점이 풀렸네요. 또한 이 사실로부터 프라하에 상주예술가로 있던 1730~32년 사이에 작곡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발디는 이 시기에 브르트비를 위해 바이올린과 류트, 통주저음을 위한 두 곡의 삼중주곡(RV82, 85)도 작곡했습니다. 사실 <협주곡, RV93>은 류트뿐만 아니라 두 대의 바이올린도 독주악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류트 솔로 협주곡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류트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오늘날 류트 혹은 기타 연주자들의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악장 '빠르고 정확하게'는 전체가 빠르게 내려오는 주제를 연주합니다. 이 부분이 '리피에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류트가 이 주제를 바탕으로 화려하게 변주하는 '콘체르티노'가 이어집니다. 이 두 부분이 교대로 반복하는 전형적인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2악장 '느리게'는 비발디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에 삽입되어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졌죠. 현악기가 연주하는 잔잔한 화음을 바탕으로 류트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중간 부분은 단조로 바뀌어 분위기가 어두워지지만, 다시 첫 주제로 돌아와 마칩니다. 3악장 '빠르게'는 경쾌한 리듬으로 분위기를 한껏 돋웁니다. 이 악장도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악기인 류트는 오늘날처럼 기타로 자주 대체되어 연주되고 있습니다.



*

루트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번호 67 '운명', '3, 4악장'

Ludwig van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3rd & 4th mov.'

'따따따따-니'으로 시작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이 곡이 지닌 시대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요소는 베토벤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던 바로 '따따따따-니'에 있습니다. 교향곡의 동기가 단 두 개의 음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었죠. 게다가 이 동기가 1악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악장에서 리듬을 바꿔 가며 강박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교향곡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의 진정한 주제는 '운명'이 아닌 '승리'입니다! 각 악장을 보면, 운명이 엄습하는 1악장, 이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2악장,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3악장, 승리를 쟁취하는 4악장으로 각각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즉, 비통함으로부터 밝고 웅장하게 변모하는 과정은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위대한 승리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유례없는 대규모 편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당시 교향곡의 규모가 커지면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팀파니를 한 쌍씩 편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현악기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여기에 피콜로와 콘트라바순을 한 대씩 추가하고, 게다가 트롬본은 세 대나 편성했죠. 이들은 마치 승리의 순간을 위해 준비한 듯, 모두 쉬고 있다가 4악장에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트롬본은 큰 음량과 함께 화성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짜릿한 쾌감을 전달하죠.

하지만 1808년 12월 22일 빈 극장에서 있었던 초연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4시간이 넘는 매머드급 공연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이 지친 탓이었죠. 하지만 시인이자 작곡가였던 E.T.A. 호프만(Ernst Theodor Amadeus Hoffmann)은 이 곡의 진가를 알아보고 여러 매체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 "감상자를 영원의 세계로 이끄는 아름다운 작품" 등의 극찬을 썼습니다. 이후 이 곡은 가장 중요한 교향곡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네 악장 중 3, 4악장이 연주됩니다. 3악장 '스케르초, 빠르게'는 전투가 벌어진 듯 호른이 강하게 주제를 제시합니다. 운명의 동기의 리듬을 넣어놓은 것이죠. 중간 부분은 성격이 다른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민첩한 연주가 등장하고,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현악기가 피치카토로 연주하며 기세가 한층 누그러져 있습니다. 씩 없이 이어지는 4악장 '빠르게'는 눈부시게 도약하는 금관의 팡파르로 시작합니다. 이 팡파르에서 운명의 주제는 승리의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만끽하는 축제로 마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다시다난했던 올해를 승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글 | 송주호(음악칼럼니스트)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
Christmas
FAMILY CONCERT
Gift



CREDITS



프로필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의 나는 새

음악감독 및 지휘자 | 금난새

Artistic Director & Maestro | Nanse Gum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는 서울대 졸업 후 베를린 음대에서 리벤슈타인을 사사했다.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 입상 뒤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향, 경기필하모닉, 인천시향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였고, 1998년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를 창단하였다.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고, 2019년 명예 교장으로 위촉되었다. 다년간 예술을 통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자칭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주한 슬로바키아 명예영사에 임명되었고, 한국-러시아 대화재단, 한국-체코 포럼, 서울예고-동경음대 교류, 튀니지 엘젠펠페스티벌 참여 등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에 크게 기여하는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REDIA

클래식 뉴 제너레이션

바이올리니스트 | 대니 구

Violinist | Danny Koo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실내악 연주자, 독주자,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세계 곳곳에서 연주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필라델피아에서 자랐으며,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도날드 웨일러스타인과 김수빈, 말콤 로위를 사사하며 학사와 석사를 취득, 협회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실내악에 열정적인 그는 김 카슈카시안, 제이미 라레도, 샤론 로빈슨, 조셉 칼리히슈타인, 버트 하라, 도날드 웨일러스타인, 루시 채프먼, 폴 비스, 김수빈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왔다. 또한, 필만 실내악 음악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브렌타노, 클리브랜드, 보로메오, 타카스 현악사중주의 단원들과 연주해 왔다. 반프와 챔플레인 호수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상주 연주가로 참여하며 벌링턴 체임버 오케스트라와도 공연했으며 지난 시즌 라 호아 페스티벌에는 '떠오르는 연주자'로 초청받은 바 있다.

음악을 통해 세상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그는 김 카슈카시안의 '음식을 위한 음악'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여성 런치 콘서트 시리즈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일본 자선 콘서트에서 예술감독을 했으며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명예 앙상블 대회에서 현악사중주와 피아노 트리오 두 부분에서 2년 연속 수상하였다. 대니는 음악원의 지역사회 공연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에도 크게 관여하며 보스턴 전 지역의 콘서트홀과 학교, 지역센터에서 공연하고 있다.

실내악 공연에 새로운 관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앙상블디토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2017년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와 함께 듀오 프로젝트 '편치'를 결성한 후 세종 체임버홀, 예술의 전당 IBK체임버홀, 충무아트홀, 티엘아이아트센터 등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아 무대에 올랐다.

대니는 뉴제너레이션 아티스트답게 개인 SNS 채널에서 연주를 선보이며 팬들과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리>를 통해 연주뿐 아니라 연기를 선보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클래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 YouTube dannykoo_boom

▶ Danny Koo 대니보이

젊음과 열정의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Orchestra |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97년 '서울 국제음악제'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해 30여 개의 지역, 100여 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음악감독 금남새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연주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조화 있는 연주는 매 공연 청중을 클래식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늘 신선한 발상으로 다양한 연주회를 기획, 연주해오고 있으며 기업과 예술단체 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도 신선한 내용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악장 문수형 | 제1바이올린 고혜리, 김지혜, 조아영, 백승훈, 김윤정, 이지은, 경태현, 이연준, 한송현 | 제2바이올린 옥자민, 김정연, 강혜진, 최성철, 이현정, 권예리, 곽예지, 조예림 | 비올라 Erwan, 박혜경, 이승구, 이창민, 김도이, 임수연, 강승주 | 첼로 임화영, 나인국, 이기주, 남예련, 김다원, 장호정, 최영 | 베이스 홍성준, 이지현, 강성준, 최승규 | 플룻 서선미리, 진은지 | 오보에 이희정, 이호진 | 클라리넷 백양지, 김아름 | 바순 하도연, 황은정 | 호른 임은진, 박은지, 강민주, 기현정 | 트럼펫 정태진, 김광일 | 트럼본 강종윤, 강완서, 장필선 | 팀파니 김두진 | 퍼커션 송하영, 박세희



기타리스트 | 서유덕

Guitar | Yu Deok Seo

기타리스트 서유덕은 만 14세에 전공을 시작하여 한국기타연주자협회 전국기타콩쿨 최우수상, 한국음악협회 국제학생콩쿨 고등부 1위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2017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공수석(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입학 후 한국기타협회 스페인대사관 공동주최 콩쿨 1위, 코리안챔버 오케스트라(구 바로크합주단)콩쿨 기타부문 전체 1위 및 해외파견 콩쿨 3위 등에 입상하였고 최근에는 금호 영아티스트 오디션에 선발되어 독주회를 열며 이후 연주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Merry
Christmas*



금난새, 과감한 도전을 즐기는 ‘돈키호테’

임경섭(시인, 『아버지와 아들의 교향곡』 편집자)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선생은 1947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금난새 선생이 태어나던 해 20세기 한국을 대표할 만한 가곡이 한 곡 탄생하기도 했는데, 그 곡이 바로 “세모시 옥색 치마”로 시작되는 가곡 「그네」입니다. 가곡 「그네」는 금난새 선생의 외할머니인 김말봉 작가의 시에 금수현 선생이 곡을 붙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 선생이 바로 금난새 선생의 아버지입니다.

올해는 작곡가 금수현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얼마 전 금난새 선생과 함께 저는 남다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향곡』이라는 에세이집 출간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들 금난새 선생이 직접 추려 다듬은 아버지의 글들에 아버지와 음악,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금난새 선생이 새롭게 집필한 글들을 더한 총 100편의 에세이가 책에 실렸습니다.

편집자로서 선생님을 처음 만나기 전,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의 높은 인지도나 다채로운 이력 등에 비추어 그가 꽤 엄격하고 간간한 분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전당에서 처음 마주한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제 예상이 편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지요. 이후로도 책의 콘셉트와 디자인, 원고 수정 등을 위해 수차례 미팅이 진행됐지만, 금 선생님은 끝까지 젊은 편집자를 예의로 대해주셨고, 당신의 뜻을 피력할 때에도 항상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상당히 꼼꼼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감일까지 당신의 문장에 오류는 없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읽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지는 않을지, 끝까지 원고에 마음을 쏟았고, 내·외부 디자인에 대해서도 내내 함께 논의하셨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언제나 나긋한 목소리와 위트 있는 말씀으로, 자칫 강요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애쓰시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금 선생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란 걸 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애야, 선 김에 맥주 하나 가 온나.” 금난새 선생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목이 말라 주스를 마시려고 일어서면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던지던 위트 있는 표현이었다고 금난새 선생은 회상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위트와 재치가 느껴지는 표현이었던 까닭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권위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섰을 때를 이용해 애교 있게 부탁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화폐 박람회 ‘머니 페어 2016’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 참석했을 때, 금난새 선생은 문득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선 김에’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베를린이면 제가 젊은 시절 공부하러 갔던 곳인데, 그냥 행사에 참석해 연주만 하고 오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왕 ‘간 김에’ 현지에 서 멋진 음악회를 하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금난새 선생의 이처럼 작은 아이디어는 유럽 난민들을 돕는 자선 콘서트로 이어졌습니다. “화폐 박람회 공식 연주 다음 날 우리는 카이저 빌헬름 기념 교회 콘서트홀에서 전날 했던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연주했습니다. 갑자기 열린 음악회라 안내 팸플 하나만 세워두었을 뿐인데, 청중이 300명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연주 중 취지를 설명했더니 난민들을 위한 기금이 3천 유로 이상 모금되기도 했습니다. 음악회도 기금 모금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현지 신문에까지 보도될 정도였지요. 아버지의 ‘선 김에’가 아들에 의해 ‘간 김에’로 이어진 셈입니다.”

금난새 선생을 가리켜 ‘무대 위의 돈키호테’라고 말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기존에 정체된 틀을 깨고 과감한 도전을 즐기는 모습 때문에 그런 애칭이 생겨난 것이겠지요. 아버지에게 유머와 위트, 그리고 도전 정신을 배웠다고 고백한 금난새. 선생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자식들 가슴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아름다운 선물을 주던 분으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글을 쓰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아버지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꾸 글도 쓰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말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늘어납니다. 어찌겠습니까? 이게 천성인 것일까요.”

선생의 고백과 함께 그의 음악을 함께한다면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여러분께 더욱 값진 선물로 남을 것입니다.

CREDIA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SEASONS IN CONCERT

2020

핑크퐁 클래식 나라
5.1(FRI) - 5.2(SAT) 롯데콘서트홀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5.13(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5.20(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5.23(SAT) - 5.24(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28(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머레이 페라이어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6.7(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6.9(TUE) 롯데콘서트홀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7.7(TUE) - 7.8(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8.23(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상 트리오 <더 트라이어드>
8.29(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클라라 주미 강 & 손열음 듀오
9.4(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9.22(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10.11(SUN) 롯데콘서트홀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11.6(FRI) 롯데콘서트홀

이차크 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11.17(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11.20(FRI) 롯데콘서트홀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11.26(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12.24(THU) - 12.26(SAT)
롯데콘서트홀

술술클래식: 더 콘서트
3.14(SAT) 6.13(SAT) 9.12(SAT) 12.5(SAT)
롯데콘서트홀

COSMOS
SINCE 1972

Boston

PIANO

DESIGNED BY STEINWAY & SONS®

스타인웨이의 DNA를 물려받은 보스톤 피아노

보스톤은 명품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설계가 적용되고 따라올 수 없는 가격대에 고품격 연주 경험을 선사합니다.



GP215 ▶
길이 : 215 cm

GP193 ▶
길이 : 193 cm

GP178 ▶
길이 : 178 cm

스타인웨이가 디자인한 피아노 **Boston**
PIANO

(주)코스모스악기에서 만나보세요.

스타인웨이 공식수입원

(주)코스모스악기

피아노사업부 02) 522-8844

대구지점 053)629-8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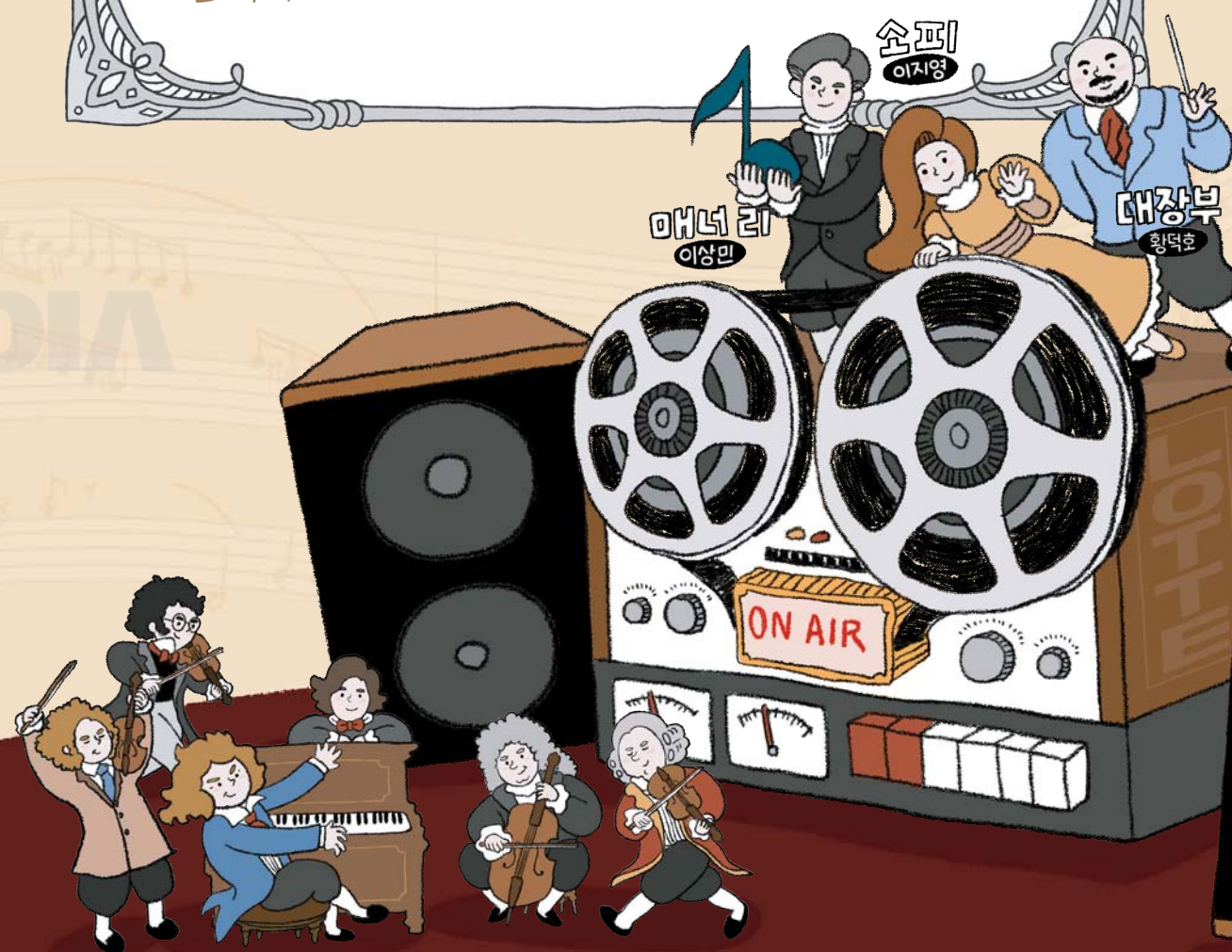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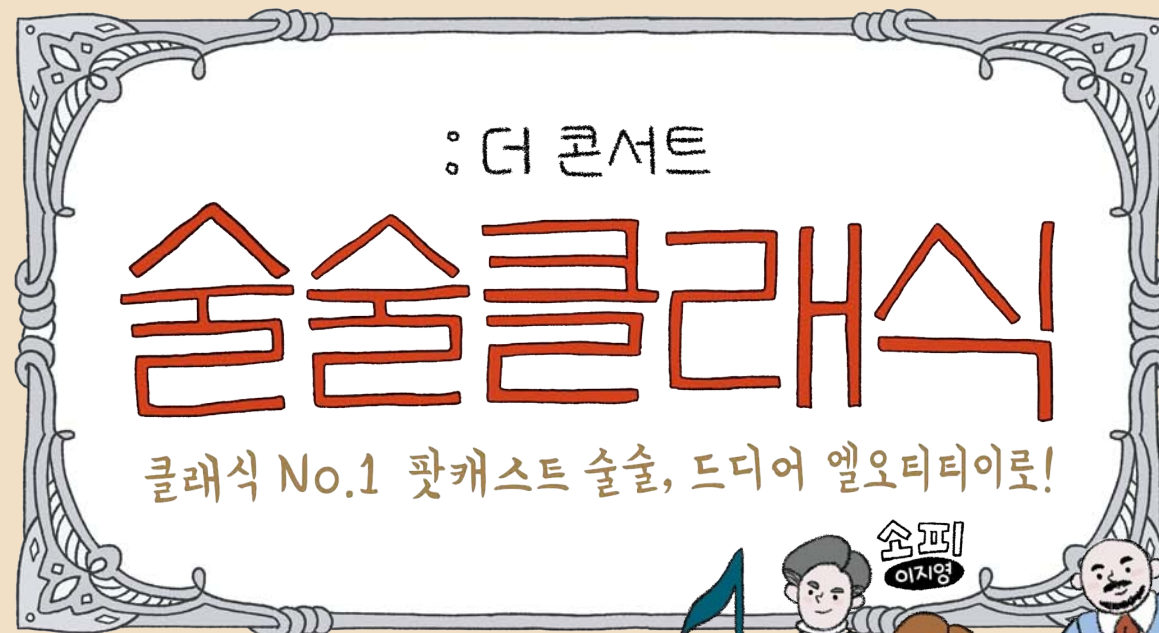
부산지점 051)804-8844

광주지점 062)515-8844

대전지점 042)489-8844

COSMOSMUSIC.COM

Club **BALCONY**



술술 앙상블 - 한수진(바이올린), 김지윤(바이올린), 이한나(비올라), 홍채원(첼로), 최현호(피아노)

2020년 3.14(토) | 6.13(토) | 9.12(토) | 12.5(토) 오전 11시 30분 롯데콘서트홀

| 주최 | Club **BALCONY** | 기획 | **DITTO Digital Odyssey** | 협찬 | **KOREAN AIR**

| 티켓 | 전석 3만원 |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LOTTE CONCERT HALL** 1544-7744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